

한국철학에 대한 비교철학적 독법 기존 비교철학의 한계 넘어서

《원효에서 다산까지》



김형효 지음
정계/A5신/630면/25,000원

최근 10년 사이 철학계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동·서의 사유를 비교철학의 시각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철학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돼온 주요 개념과 사유방식에 대한 동·서 철학전문가들의 공동연구는 학계에 일련의 성과물을 제출하고 있다. 김형효 교수는 이런 비교연구작업을 선도해 온 철학자다. 그의 이번 저서 《원효에서 다산까지》는 개념의 교차적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교철학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통철학을 재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원효·지눌·퇴계·율곡·다산 등 한국철학사의 다섯 거목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일심이문(一心二門)에 대한 원효의 성찰을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자심(自心)에 대한 지눌의 성찰에 대해서는 현상학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내면성으로 침잠하는 향내적 성격을 가진, 마음에 대한 실존철학의 한 형태로 분석한다.

리발(理發)을 주장하는 퇴계의 성리학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향보다 종교적 지향이 더 풍부한 자연신학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인심과 도심, 사단과 칠정에 대한 율곡의 성찰에 대해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대비시키면서 통일성과 분

열성이 함께 갖는 현상학적 사유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더 나아가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이해방식을 네오플라토니즘과 아리스토텔리즘으로 대비시킨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형(形)과 신(神)의 관계로 성을 기호(嗜好)로 성찰하는 다산의 사유에 대해서는 의지와 행사의 철학으로 성격을 규정하면서, 심신일원론적 지성의 실용학과 심신이원론적 의지의 실천학이 혼합돼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산의 실학사상이 혼합적인 이유는 유교와 서교의 본질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저자는 다산을 지성적이면서 의지적 행사의 정신(doining spirit)을 가장 뚜렷이 고양시킨 철학자로 평가하고, 맹자의 사회과학적 한계를 순자적 경영학으로 조화시켜 근대의 지평을 열고자 했던 진취적 사상가로 자리매김한다.

다섯 거목에 대한 이런 독해에서, 저자는 불교나 유학적 문맥에서가 아니라 철학적 문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즉 저자의 주전공인 현대유럽철학을 토대로 전통사상의 철학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비교철학의 관점을 시종 일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하는 철학적 문맥이 실제로는 유럽철학의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철학의 의미를 읽어내는 형태며, 그 점에서 유럽철학의 관념과 한국철학의 관념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종의 주중관계로 진행되는 불균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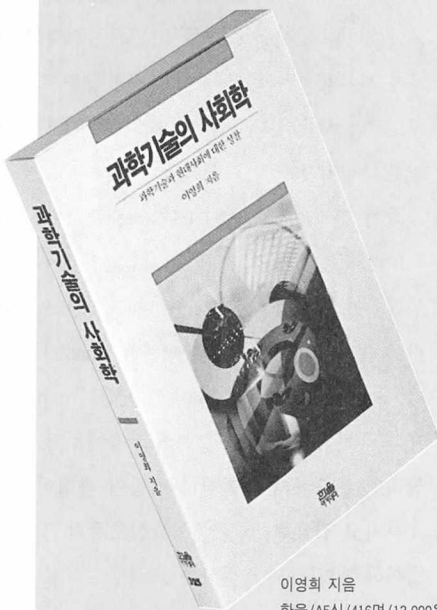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텍스트와, 그 텍스트에 관련된 전통의 문법에 대해 세심하고 계발적인 재해석을 가함으로써, 저자는 '추상의 정신'으로 과잉된 기존 비교철학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전통철학의 문법에 대한 저자의 독법이 한층 숙성됐음을 맞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비교철학의 시각이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주목받을 만하다.

이봉규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논문 <성리학에서 미발의 철학적 문제와 17세기 기호학파의 견해> 외.

과학기술 사회학 연구동향 소개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이해 결여돼

《과학기술의 사회학》



이영희 지음
한울/A5신/416면/13,000원

《과학기술의 사회학》의 출판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매우 빈약한 국내학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구미에서는 이미 약 40년 전부터 과학기술 사회학을 매우 활발하게 연구해왔지만 국내에서는 몇몇 학자들만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연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는 과학기술사회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소위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다루고, 2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interface)에서 파생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점—신기술과 생산방식과의 관계, 정보통신기술과 그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한다. 3부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서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는 지금까지 당연시돼 온 과학과 대중의 유리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개념모형을 정립함으로써 과학과 대중의 상호작용을 통해 좀더 나은 과학/사회간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독자들에게 과학기술 사회학의 다양한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서로서 권할 만하지만, 반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긴다. 지면의

계약 때문에 필자는 한가지 문제에만 논의를 집중할 것인데, 이것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입장에 관한 것이다. 제1부 1장에 소개된, 과학사회학에서의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매우 간략한 논의는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소화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제 자체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해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후에 논의되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따라서 구성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돼 이 책에서 주장되는 많은 것들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통제와 민주화가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교수는 평범한 지식, 즉 보통사람들이 가진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63~365쪽). 평범한 지식과 과학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교수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평범한 사람들의 지식이 과학지식보다 더 정확했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과학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과학연구의 방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과학지식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항상 논란의 여지없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여과없이 나타내는 객관적 도구가 아니며 논쟁과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깔려 있다. 바로 이 주장이 구성주의의 핵심인데, 구성주의는 어떤 협상과정을 거쳐서 과학지식이 만들어지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과학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과학지식은 과학자들의 임의대로 구성되는 것인가? 아쉽게도 독자들은 구성주의에 대한 이 책의 논의에 기반해서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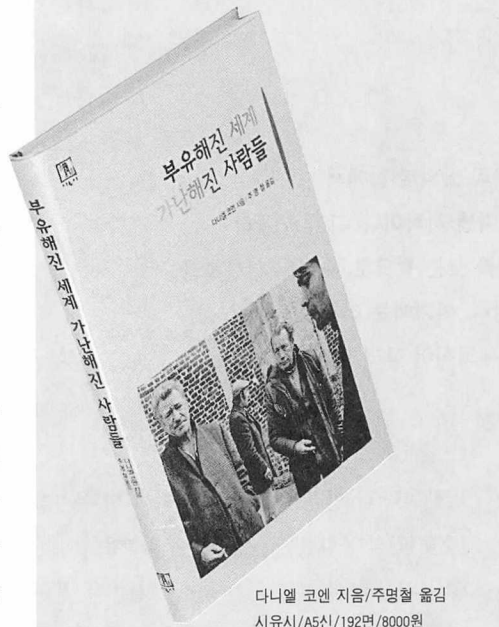
김경만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Explaining scientific consensus》 외.

서평

불평등의 원인 설득력 있게 분석 정부역할에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다니엘 코엔 지음/주명철 옮김
시유시/A5신/192면/8000원

불과 30년 만에 총생산액을 세배로 늘려 놓은 세계는 전후 '영광의 30년' 속에서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이 줄어들 것으로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은 이런 세계경제의 불평등 심화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철도를 발명했던 제1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낸 제2차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하는 제3차 산업혁명 속에서 세계는 총량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으나 국가간 그리고 부국인 서구의 내부에서조차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엔은 이 시대에 누가 가장 가난한지 잘 밝혀주고 있다. 여성작취, 농촌작취, 엘리트 부패의 대명사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물론 부유한 나라 안에서도 제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통적인 노동자들은 제3차 산업혁명시대의 숙련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가장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간의 격차나 부유한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격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저자는 앞으로 세계 속의 불평등보다 개별 국가 안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즐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불평등의 원인이 세계화 때문이라거나 싱가포르·홍콩·한국·대만 등 일부 신흥공업국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결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거 굴뚝산업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가난해지고 정보통신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전문화된 인력은 부유해지는 것처럼 최고는 최고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어울린다는 '선별적 짝짓기' 현상이 노동시장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 학교·가족·국가 등 사회 각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부유해지는 세계 속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화는 제3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치·경제의 지혜로운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분석이 뼈어난 것은 세계는 부유해지는데 누가 가난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해박한 역사와 경제학 지식을 통해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이익이라는 것은 국제경제학의 교과서적 이론이지만 이것을 단선적 논리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적 사실과 경제이론을 곁들여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 책이 사실설명, 원인규명, 미래전망까지 매우 설득력 있게 이어가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러면 무엇이 답인가에 대해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결국 정부의 역할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하튼 이 책의 분명한 메시지는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세계화는 아니라는 데 있다. "세계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모험이다"는 이 책의 마지막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저서 《산업조정: 이론과 실제》 《우리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재벌개혁의 경제학》 외.